

Press Release

October 2, 2014

For Immediate Release.

Korea's largest annual English teachers' conference returns October 12-13 2013 (Saturday-Sunday).

1400 Korean and expatriate teachers of English join to "Explore the Road Less Traveled" at the 21st annual KOTESOL International Conference October 12-13 a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Seoul to hear and share from the world's top language educators and each other.

Exploring the Road Less Traveled: From Practice to Theory

A teachers' conference with practical applications, useful experiences, and fresh ideas for teachers of English.

*<<Many sessions are presented by Korean teaching experts.
Two sessions are highlighted in the next two pages of this release.>>*

According to KOTESOL President Dr. Mijae Lee, Korea TESOL has never been stronger. "We have more members than ever, representing diverse English teaching settings across Korea, including *hagwon* teachers, public school teachers, kindergarten teachers, and university faculty."

While some have pointed to KOTESOL as an "expat teachers' society," President Lee points out that she herself is representative of the thriving Korean aspect of the organization. "Nearly one-third of our members are Korean," she observed. "Our strength is our bicultural membership."

There will be 17 specially invited speakers at the conference, including three that join a colloquium via web-cam. 30 publishers and distributors will display their educational materials and offer special workshops during the weekend.

QUICK FACTS

Date: October 12-13, 2013 (Saturday-Sunday)

Venu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TESOL (KOTESOL, Korea Teachers of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 대한영어교육학회) was founded in 1992, and is the official Korean affiliate of both TESOL International (USA) and IATEFL (United Kingdom). KOTESOL has 900 teacher-members, 30% are Korean teachers of English and 70% are expatriate teachers in Korea.

KOTESOL website: www.koreatesol.org

Contact President/Professor Lee Mijae 010-991-52007 mjlee@suwon.ac.kr

2 페이지 전지현교수, 이화여자대학교 (Featured Speaker)

3 페이지 "Cassie Kim" (탈북자인: Defector from North Korea)

2 페이지 전지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Featured Speaker)



고품질 사진 http://www.koreatesol.org/media/people/jihyeon_jeon.jpg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교육: 무엇이 고려되어야 할까?

English for global communication: What matters?

본 발표는 청중이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교육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정부는 한국인들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영어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교육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 기본적인 장애요인은 무엇일까? 기본적인 장애요인 이외에 현재 진행되는 한국의 영어교육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어지는 실제 의사소통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들이 듣는 것' 보다 더 중요할까? 본 연구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영어교육에서 상대방 중심 접근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전지현 교수는 현재 이화여대 경영대학 국제사무학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까지 다수의 논문과 국내외 발표에서 언어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전지현 교수의 통합적 관점은 포스트 모던 철학과 제 2 언어 커뮤니케이션과 문화교육의 수학;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경험; 영어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경험과 비즈니스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경험; 한국영어교육학회에서 총무이사로서 또 아시아 전역을 대표하는 아시아 영어교육학회의 사무총장으로서의 학회경험; 또, 학습자, 교수자, 학자, 정책평가자, 학부모로서의 다양한 경험에서 얻어진 것이다. 최근 연구로는 의사소통중심 교육의 적용에 관한 주요이슈 연구, 영어평가의 제반 이슈: 한국적 관점에서, 영어교육 정책평가도구 개발 연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주요이슈 연구 등이 있다.

이메일: dearjeon@ewha.ac.kr 전화 (가능 시간) Contact via email for phone

10.3 (목) 11am -> 9pm

10.7 (월) 11am -> 3pm

10.4 (금) 2pm -> 9pm

10.8 (화) 11am -> 9pm

10.5 (토) 11am -> 6pm

10.9 (수) 11am -> 9pm

10.6 (일) 2pm -> 9pm

10.10 (목) 11am -> 9pm

3 페이지 Cassie Kim

다 가오는 KOTESOL 국제 컨퍼런스에서 탈북자인 Cassie Kim 씨가 북한에서의 영어교육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의 교육문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은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과거 북한의 영어교사로부터 북한 영어교육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듣게 될 것이다. “저는 한국의 영어 교육자들에게 북한의 영어교육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싶어요. 컨퍼런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북한의 영어교육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Cassie Kim 씨는 북한의 함경북도 출신이다. 11 살 되던 해 그는 청진외국어학원에 입학하였다. 북한의 외국어학원은 도마다 1 개씩 설립 되어있다. 청진외국어학원에서 그는 영어를 전공하는 동안, Edgar Allan Poe 의 소설, 그리스 신화 등 영어로 된 서적들을 읽기도 하였다. 졸업을 하고나서 Cassie Kim 은 고등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였다.

Cassie Kim 은 2000 년대 중반 대한민국의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는 한국 도착 직후 대학교에 진학하였으며, 가끔 탈북자들을 상대로 영어과외를 하였다. 그는 최근 석사과정을 마쳤다.

“영어과목은 북한에서도 주요과목이기는 하지만 북한에서 영어교육의 질은 한국에 비하면 현저히 떨어져요. 그래서 탈북자들은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자란 학생들에 비해서 영어때문에 애를 많이 먹죠”.

Cassie Kim 씨는 기타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서 cassiekimKOTESOL2013@gmail.com 메일을 보내면 답변을 보내줄 것이다.